

신약, 개발 요란하나 매출 기대이하

2004년 약품비 청구금액 289억원 불과 ... 한국Pfizer는 1316억원 달해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출시됐던 대부분의 국산 신약들이 신약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기대한 만큼의 매출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내 개발신약의 연도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방식 약품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국내 개발신약은 9개 품목이다.

국산 신약의 청구금액은 2004년 집계 결과 총 288억8100만원에 불과했다.

동아제약의 스티렌캡셀이 155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SK케미칼의 조인스정200mg이 87억98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중외제약의 큐록신정100mg이 23억3500만원으로 3번째를 차지했다.

셀론텍의 콘드론 5억8500만원,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320mg 5억5600만원, 종근당의 캄도벨주 2억9200만원, 동화약품의 밀리칸주 2억8200만원, SK케미칼의 선플라주100mg과 선플라주50mg은 2억6300만원, 대웅제약의 대웅이지 에프외용액 1억8000만원 등 약품비 청구금액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기업 한국Pfizer의 대표적 처방약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는 2004년 1년간의 청구액이 2004년 1316억원으로, 국산 신약의 초라한 성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국산 신약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한 제약기업 관계자는 “이미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국산 신약이 의료진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외면받는 것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23>